■ 르포 - 전남 동부권 '물폭탄' 피해 현장

새벽 흙더미 암자 덮쳐 2명 참변

가옥 덮친 900년 은행나무 고흥군 영남면 금사리 사두마을에 심어진 수령 900년의 은행나무가 지난 8일 새벽 내린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부러져 류모(여·63)씨의 주택을 덮쳤다. 10일 오전 류씨가 집안을 둘러보고 있다. /고흥=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여수선 70대 여성 배수로 빠져 사망

농경지·비닐하우스 침수 농민 발동동

"폭우로 곳곳에서 사람이 목숨을 잃고 집이 무너져내려 눈앞이 캄캄합니다. 이제 그만 비가 그쳐야할 텐데 걱정입니다."

10일 오전 11께 보성군 회천면 화죽리 한 암자. 주말과 휴일 내린 비로 쓸려 내려온 토사에 뒤덮인 암자 주변을 포클레인이 부산하게 정리하고 있었다. 암자는 이미 내려 앉아 형태를 찾아볼 수 없었고, 흙더미 속에 파묻힌 양초 몇 개와 라디오 등 생활도구만 널브러져 있었다.

산사태로 흘러 내린 토사로 암자가 뒤덮인 것을 마을 주민이 발견한 시각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암자를 지키고 있던 문모(여·96)씨와 마모(여·86)씨 등 2명은 이미 토사에 깔려 숨을 거둔 뒤였다. 암자 바로 옆 묘지의 비탈면은 심하게 깎인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문씨 할머니 등은 전날 오후 3시께 '예식장에 다녀올테니 집을 봐달라'는 동생의 부탁을 받고 함께 암자에 있다가 전날 밤부터 오전 사이에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날 여수에서는 70대 여성이 마을 배수로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같은날 오후 1시께 고흥군 영남면 금사리 사두마을 류모(여·63)씨의 1층 주택. 류씨의 집은 900년 된 은행나무 한 그루가 지난 8일 새벽 강한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부러져 덮치면서 절반 이상 주저 앉은 상태였다.

류씨의 집 내부로 들어서자 곳곳에 거대한 나뭇가지가 파고들어 당시의 아찔한 상황을 짐작케 했다. 집안 곳곳의 유리창은 산산조각났다. 류씨는 "다행히 잠을 자고 있던 위치에는 나뭇가지가 덮치지 않아 큰 변을 당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인근 고흥군 남양면 망주리 망주초등학교 입구 앞 편도 1차선 도로 10m가량이 무너져내려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10㎝ 두께의 아스팔트 도로 일부는 주말과 휴일동안 내린 비로 힘없이 주저 앉아 비스킷처럼 쪼개져 붉은색 흙이 그대로 노출됐다.

고흥과 보성, 강진 등 전남 동부권 일대 농경지와 비닐하우스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곳곳의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겨 농민들은 애를 태우고 있었다.

고흥군 주민 김모(62)씨는 "이번 장마로 마을 이곳저곳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면서 "앞으로도 더 비가 온다는데 큰 일"이라며 근심 어린 표정을 지었다.

/고흥=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주각중·선상근기자 gjju@

북태평양 수증기, 지리산 만나 폭우

■ 동부권 물폭탄 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지난 주말과 휴일 광양, 고흥 등 전남 동부지역에 물폭탄이 쏟아졌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10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9일 하루 강우량은 광양 357.5㎜, 백운산 331.5㎜, 순천 317.5㎜, 고흥 305.5㎜, 보성 260.5㎜ 등 전남 동부권 시·군에서는 250~350㎜의 비가 내렸다. 그러나 같은 날 광주는 55.5㎜에 그쳤다.

전남 중서부에 위치한 나주는 57.0㎜, 목포 65.5㎜, 담양은 70.0㎜에 불과했다.

동부지역은 지리산 등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는 데다 구름대의 중심이 동쪽에 걸쳐 있어 서쪽에 비해 큰 비가 내렸던 것으로 분석된다.

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 전면부에 지리산과 백운산 등 높은 산이 위치해 강제 상승기류가 발달해 많은 비를 몰고 왔다고 설명했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한반도 남동쪽에서 북상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높은 산을 만나 대기가 상승하면서 불안정해진 데다,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한 수증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동부지역에 비가 집중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광양에 내린 비의 양(357.5㎜)이 광주·전남 역대 1일 강수량 중 8번째에 해당하는 기록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에서 역대 가장 많은 1일 강수량을 기록한 곳은 장흥으로 지난 1981년 9월 2일 태풍 아그네스의 영향을 받아 쏟아진 547.4㎜가 최고치다.

당시 고흥에도 487.1㎜, 해남 477.5㎜, 완도 414.3㎜, 목포 394.7㎜가 내렸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복구작업 벌이는 국군장병 10일 육군 31사단 소속 군인들이 집중호우로 침수된 강진군 강진읍 춘천리 보전마을의 한 논에서 수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강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통시장 보조금 횡령 의혹

관련단체 사무실 압수수색

순천경찰

순천지역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 과정에서 관련 단체가 국가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일 오전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인 순천의 모 단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통장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사업 서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해당 단체는 지난해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각각 3억원의 국가보조금을 받았고 이 중 일부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내사 단계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자료 분석이 끝나는대로 단체 대표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선박 허위 등록·'영농확인서' 부정 발급

영산강 사업 보상금 부당 수령 수사

전남경찰, 30여명 조사

전남지방경찰청은 10일 '4대강 사업' 영산강 사업과 관련해 서류를 허위로 꾸미는 수법 등으로 30여 명이 부당하게 보상금을 타 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산강 사업지구 중 하나인 승촌보 인근 토지 소유자들과 선박 소유자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 소유자들은 농사를 짓고 있다는 '영농확인서'만 있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마을 이장에게 '영농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영농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 갔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토지 소유자들 대부분은 광주 등 외지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승촌보 인근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타인의 선박을 자신의 선박인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보상금을 타낸 사람들도 수사 선상에 올랐다. 이들은 선박이 차량처럼 고유 번호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4대강 사업 보상금 수령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총기사건' 연대장·대대장 보직 해임

정이병·소초장 구속

해병대는 지난 4일 2사단에서 발생한 총기사건과 관련해 해당 연대장과 대대장을 보직해임하기로 했다.

해병대측은 10일 "이번 총기사건과 관련해 지휘책임을 물어 해당 연대장 민 모 대령과 대대장 한 모 중령을 보직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 대령은 오는 12일, 한 중령은 11일에 각각 보직해임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군 당국은 총기사건과 관련해 정 모 이병과 해당 소초의 소초장, 상황부사관을 지난 8일 구속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이병을 상관살인과 살인, 살인미수, 군용물 절도 혐의로 구속한 데 이어 소초장이 모 중위와 상황부사관 한 모 하사를 사단경계작전지침서 미이행 등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말했다.

정 이병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의 주범인 김 모 상병과 같은 법적 혐의를 적용했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 이병은 사건 당일 김 상병과 함께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사건의 주범인 김 모 상병(19)에 대해서는 상관살인과 살인, 살인미수, 군용물 절도 혐의로 지난 9일 오후7시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 상병은 현재 소속 의무근무대에 격리돼 있다.

/연합뉴스

교통사고 뺑소니 해남 공무원 검거

해남경찰은 10일 운전 중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도주차량)로 해남군 8급 공무원 김모(3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오전 1시 25분께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끌며 지나가던던 관광객(21)을 치어 팔 등을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 떨어진 차량 옆 거울 유리를 수거해 소유자를 수소문한 끝에 김씨가 공업사에 동일 차량의 수리를 맡긴 사실을 파악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신안 만재도 전복사고 선장 2개월 업무 정지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원장 김삼열)은 10일 지난해 12월 26일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 해상에서 전복사고를 낸 목포선적 495t 항로 페리 2호 선장 김모씨 등 2명에 대한 재결심판에서 항해사 2개월 업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해심원은 김 선장 등이 기상 특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24t 차량 1대를 제대로 묶지 않고 비스듬하게 적재해 선체가 3도가량 기운 상태로 출항하는 등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자칫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술 취해 여주인 껴안으려다 몸싸움

쌍나팔

○…술에 취해 식당 여주인을 껴안으려던 40대 2명과 이를 말리던 50대가 시비 끝에 몸싸움을 벌이다가 함께 경찰서행.

○…10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박모(48)씨 등 2명은 지난 9일 밤 11시께 광주시 서구 금호동 한 횟집에서 오모(51)씨와 서로 주먹다짐을 했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박씨 등은 술에 취해 횟집 여주인과 포옹을 하려던 중 이를 본 옆 테이블 손님 오씨가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따져묻자 뒤엉켜 싸운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에서 박씨 등은 "마시던 술이나 계속 마실 일이지 왜 남의 일에 참견하는지 모르겠다"고 볼멘 표정.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14만 합격자가 말한다
2012 학년도 대학편입은 김영과 함께
상위권 대학편입대비, 자타공인 대한민국 No.1
편입영어(이론과정/문제풀이)
자연계열 편입합격의 열쇠, 지방 유일 실강의!
편입수학(미,적분과정/선형대수)
전남대 편입 Hot Point!, 전남대 맞춤형 Teps-
Teps大개강(Teps+면접대비)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김영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062) 227-8088
www.kimyoung.co.kr 개강 : 8월 1일